

buddhanews.com

이 모두가 한 찰나 생각하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25면에서 계속

신을 믿어야 되죠. 딴 신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신을 믿는 거예요. '나를 수억겁 동안 이렇게 진화시키면서 사방팔방으로 끌고 돌아다녔구나.' 하고 내 주인이 나를 이끌어 온 거를 진짜로 믿을 때, 진짜로 마음의 주인을 믿을 때 성과가 있겠죠. 진짜로 믿는다면 안 해도 좋고요, 진짜로 믿지 못한다면 바깥으로 끄달릴 거고요. 그거는 당신의 생각에 달린 거죠. 그런 당신의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질문자3(여): 그래도 마음의 중심이 안 잡히고 이래 볼까 저래 볼까...

큰스님: 그러니까 공부를 하라 이 소리 아닙니까?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책에서 의사가 되려면 의사가 되고요, 약사가 되려면 약사가 되고요, 또는 마구니가 되려면 마구니가 되고요, 사람 끌어가는 사자가 되려면 사자가 되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허허하...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세요.

좋은 질문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이 참선이 아닙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 그냥 질문해도 됩니다. 남이 뭐, 나를 금에다가 얹어 놓겠습니까. (삼 배 하는 질문자에게) 한 번만 하세요. 그 한 번마저도 나한테다 하는 게 아니니까요. 나야 뭐 한 번을 하든 안 하든 상관도 없어요. 저 부처님도 그럴 거예요. '열 번을 해 보라, 나한테다 하는 건가.' 하고, 허하하... (대중 웃음) 부처님은 속지 않거든요. '백 번, 삼천 번을 해 보라, 나한테 하는 건가.' 그러시죠, 허허하...

질문자4(여): 스님, 가까이에서 빚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애써 주신 회향님과 여러 신도님 덕택에 이렇게 가까이 뵈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큰스님: 어유! 그런 걸 아시니까 공부가 되겠습니까. 하하하!

질문자4(여):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공부가 안 되고 몰라서 답답하고 궁극한 마음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평소에는 저를 신문에서나 뭐 나쁜 기사를 보면 '주인공! 저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옳은 공부 방법인지요.

큰스님: 사람이 아주 친절해야 합니다. 그냥 아무것에나 괜히 마음내고 이러질 마시고요.

질문자4(여): '십주를 잡아라' 하신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 십주가 안 잡혔는지 불... 그리고 시동생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현재 눈이 안 보입니다. 제가 어떻게 마음을 내서 그런 건지, 머리로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가 궁극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수술을 하기 전에는 '내가 공부 잘했다면 저 시동생을 수술까지 안 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큰스님에게 맡기면 될 텐데 내 힘이 약해서 못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

혼자만 애를 태웠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세 번이나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래도 가망이 없어서 뭐 소련까지 가느니 어쩌니 하고 지금 집안에서 의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에 어떻게 안양에 가서라도 큰스님 한 번 보았으면 했는데 스님께서 마음을 내셔서 여기까지 오시니 가까이서 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큰스님: 마음을 낼 때도 침착하게 결정을 지어서, 모든 걸 한군데에다가 놓으실 줄 알아야 되고, 한군데서 나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길을 가다가 개가 묶여서 끌려가거나 소가 도살장으로 가거나 닭이 전부 백수 하는 데로 가는 것을 본다 하더라도 한생각에 무명을 벗겨 줄 수 있거든요. 수만 개를 갖다가 집어넣어도 두드러지지 않는

서...

큰스님: 공부가 어떻게 됐는지 감을 잡을 수 없는 것조차 거기다가 맡겨 놓으세요.

질문자4(여): 제 문제 하나도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큰스님: '해결 못한다' 하는 생각도 그냥 무조건 거기다 맡겨 놓으세요.

질문자4(여): 감사합니다. 끝으로 큰스님 이렇게 봐어도 전권이지만 저의 시동생이 직접 좀 전권하기를 희망합니다.

큰스님: 그렇게 '거죽으로 본다. 거죽으로 뵈는 다. 거죽으로 봐야만 되지.' 이런 생각은 좀 어두운 생각이 아닐까요? 이것 보세요. 보이는 거는 전자와 전자지마는 불이 확 켜지는 거는 전자

이 세상이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헤아릴 수 없이 생명들이 태어났어도 보살님 하나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무효입니다. 그렇죠? 없죠?

질문자5(여): 예.

큰스님: 그렇습니다. 상대도 없고 아무것도, 미움도 고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책에서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상대가 생기고 세상이 모두 벌어진 겁니다. 그런 거와 같이 '모든 부처님은 한 부처님이다.' 하는 것은 평등한 생명! 평등한 생명을 말합니다. '부처님은 한 부처님이다. 한 생명이다.' 하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절에 사람이 없다면 부처가 없느니라." 그것이 왜냐? 생명은 다 똑같지마는 씩씩이는 다 달라

지금은 불교 탄압을 하지 않는데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처님은 한 부처님'이라고 얘기한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리 속에서 너무나 알아야만 모든 돌아가면서 돌 아닌 도리와 돌 아나게 나투는 도리를 알기 때문에, 너무나 알아야 되겠기에 내 집의 전화통부터 뇌라 이 소립니다. 내 집에 전화 놓을 때까지는 남의 집에 전화 놓은 것 쫓아다니면서 간섭하지 말아라! 그리고 남의 집에 전화 놓은 거에 가서 전화를 좀 하고자 하고 전화를 받고자 하고 이러한 것을 하지 말아라. 내 집에 전화를 놔서 전화 받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할 때에 비로소 단 절에 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질문자5(여): 그래서 저도 이 한마음 공부를 제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있고, 제 주인공을 그만큼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시간이 없어서 절에 못 올 때 제가 탄 절에 가면 어머니 하시는 그 말씀이 뇌리에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꼭 스님한테 한번 여쭙어 보아야 되겠다고...

큰스님: 그것도 자유입니다. 병원에 가지 마라, 가라 이런 게 아니죠. 병원에 가는 것도 법, 안 가는 것도 법인데 그것이 안 되고 되는 것은 그 마음에 따라서 되고 안 되는 것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거는 억지로 '가지 마라, 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질문자5(여):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이끌리는 대로 제 주인공이 하는 대로...

큰스님: 예! 예! 마음대로 하십시오.

질문자5(여): 감사합니다.

큰스님: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는 것도 누가, 아니 업식이 많아서 도독질을 시키는 수도 있고 강도질을 시키는 수도 있고, 또 정말 좋은 일을 시키는 수도 있고 아주 악한 일을 시키는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자기가 다스려서 잘 해 나가는 데에 멋진 도리가 있는 거지 아, 그걸 다스릴 줄 모른다면 안 되죠. 그냥 구멍이에 빠져도 법, 구멍이에서 나와도 법이니까 '구멍이에 빠지는 것도 법이라면, 그러면 잘못돼도 좋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마는 그건 자유에 달립니다.

사회자: 시간 관계상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질문하시고요. 노래공양을 올리겠습니다. 곡목은 '선종판문 알아보세'입니다.

큰스님: 한 사람, 두 사람만 더 했으면 좋을 걸, 아주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 그저 그렇게 해 나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위 법문은 1992년 4월 26일 국내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미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미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향기가 나오고 조건 없는 사랑을 할 때에 비로소 조건 없이 모든 게 들어옵니다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수효대호가 아니라 만 개를 한데 합쳐서 한 사람으로서 그 무명을 벗겨주려도 벗겨줄 수 있는 거고, 개개인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이렇게 인구가 많은 상태니까 그 씨를 너무 많이 벌일 필요가 없으므로 그저 나한테다 놓아서 풀려서 생산이 되게끔 한다면 아주 적은 수효로 나가요.

지금 시동생 문제도 그렇습니다. 모든 건 자신이 하는 것이 외려 더 중요하죠. 그리고 주위에서도 함께 똑같이 하는 겁니다. 또한 이 몸이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데 칼을 대서 변경하거나 한 뒤에 자연법적으로 자생력에 의해서 나오려 하면 참 힘든 문제가 많다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저런 것도 다 불문에 부치고 모든 거를 다 주인공에 놓아 보세요. 병원에 가도 법, 안 가도 법이니까 '그저 가는 것도 법, 안 가는 것도 법, 네놈이 알아서 이끌어가지고 가는 거니까 당신만이 고쳐줄 수 있어. 당신만이 이끌어줄 수 있어.' 하고 믿을 수 있고 물러서지 않는다면...

그거는 자기 마음에, 모두의 마음에 달려 있지 태양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허허하... 예를 들어서 태양은 높고 낮음이 없이 여러분을 비춰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달을 지어 놓고선 태양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아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벽을 탁탁 털어 버리고 태양 빛을 쬐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이구! 벽이 없으면 안 되지.' 하고 벽 속에서 검검하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벽을 만들어 놓고 태양 빛을 쬐려고 한다면 그거는 전부방만부항한 소리죠.

질문자4(여): 스님께서서 저희가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요? 전 아직 공부가 어떻게 된 건지 감을 잡지 못해가지고 너무 안타까워

와 전자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작용을 해야만 불이 들어오는 거지 마음과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올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열심히 그저 자기 자성불을 진짜로 믿고 해 보세요. 자성불이 공해서 그냥 주인공 공이라고 하는 거니까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주인공! 당신만이 이끌어 줄 수 있어!' 그렇게 하세요. 본인더러도 그렇게 하라 하시고요. 또 주위의 보호자들도 그렇게 하시고요. 그거뿐이 아니라 그저 용도에 따라서 따지는 대로 넣으세요. 그럼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새로 생산이 돼서 착작 나갑니다. 자동적으로요.

질문자5(여): 반갑습니다. 저는요, 합천 해인사 자운 스님 사리 친견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니까 수녀님이 그 사리를 친견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님은요, 여기 한미음선원에 다니면 한미음선원에만 가야 되는 거다. 탄 절에 갈 때는 그 절에 구경하러 간다 생각하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먼젓번에 어느 회관에서 한 스님께서, 절에 갈 때는 부처님을 믿고 가는 거지 스님의 씨를 육신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절에 계시나 부처님은 다 같은데 왜 딱 탄 절에 갈 때는 그 절에 구경하러 가는 것처럼 하고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세계 어디에 있던 부처님은 한 분이고 제 마음이 부처이듯이 서로가 다 부처님은 똑같은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의 시어머님께서 그러시니까 사실 시어머님이 조금 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스님한테 이 궁금증을 질문드립니다.

큰스님: 말씀 잘하셨어요. 참 말씀 잘하셨어요.

범음범패 학인모집

전통사찰 안정사 범음범패 영산재 보존회에서는 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해 뜻이 있는 출가 수행승려와 재가불자님께 수강생을 모집 하고자 알립니다

- ◆ 자 격 :
 1. 사발염의한 출가승려
 2. 불교와의 특별히 인연이 있는 분 (재가불자)
- ◆ 교육기간 : 1년과정 (초급반 : 6개월과정)
- ◆ 교육내용 : 불교 각단 예불 및 천도제의식

- | | |
|--------------|-----------|
| 1. 각종 전문 재의식 | 4. 사다리나바라 |
| 2. 사물 다루는법 | 5. 오공양작법 |
| 3. 천수바라 | 6. 요잡 |
- 불교의식무용반 : 선화무, 해원무, 학춤
□ 연구반 : 산청사범음범패

- ◆ 수 강 일 : 매주 화요일 개강
오전 10시 ~ 오후 17시까지
- ◆ 준 비 물 : 필기도구, 녹음기
- ◆ 수 강 료 : 월 10만원
- ◆ 교육장소 : 전통사찰 안정사 교육원(강원) 승현스님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888번지)
- ◆ 문의전화 : 055)649-6711, 010-8533-6775
팩스 055)649-6712

전통사찰 안정사 범음범패 영산재 보존회

모 집 공 고

기도스님 2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법당보살 1분도 모십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수행 경력이력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팩스)

팩스번호 031)906-5108
사찰전화 031)905-6088
사무장 직 011-743-4757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STT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체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통증 및 마비 종합 치료편 탄생!!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향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 (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추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이외에 600여종의 병원에 치료 불가능하였던 중증 수목.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75,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예금주: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사군자 떡

나눔과 자비의 정신으로 정진하겠습니다

불단용, 제사용, 법회용, 개인 행사용
모든 떡을 정성을 다해 만들겠습니다

모든 떡 일체 문의 : 사군자 떡

경기 의정부시 제일시장 다동 2호
031)843-3372 / 017-302-3372 일심행 합장